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을 위한 아버지의 이름

-『수레바퀴 아래서』의 한스를 사례로-

A Signifier of “Name-of-the-Father” for Adolescents’

Subjectivation

-The Case of Hans in Hesse’s 『Beneath the Wheel』-

조 희 주*

접수일: 2016년 1월 12일, 수정일: 2016년 2월 19일, 게재확정일: 2016년 2월 20일

요약(Abstract): 본 논문은 청소년이 라캉 정신 분석에서 말하는 주체화의 길에 올바르게 진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육자의 양육태도 점검과 성찰을 목표로 한다. 연구자는 청소년이 호소하는 문제의 원인을 ‘(어머니)대타자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분리의 실패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이것으로 인한 청소년의 문제를 가시화하기 위해 헤르만 헤세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자전적으로 그려 낸 작품 『수레바퀴 아래서』의 한스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라캉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주체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계기’를 살펴보고, 한스의 주체화 과정과 실패 원인을 라캉의 정신의학으로 진단한다. 둘째, 자신이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스에게 필요했던 ‘아버지의 이름’을 라캉 이론으로 설명한다. 셋째,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이란 어떤 것이며, 이를 위한 양육자의 양육태도와 가치관을 점검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제대로 입력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주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강압, 지시적인 아버지 이름의 기표가 아닌, 수용하고 기다릴 줄 아는 아버지의 이름이 입력되어야겠다. 둘째, 청소년을 양육의 대상에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협동과정 문학치료학과(Email: whgmlwn33@hanmail.net)

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로써 청소년들이 대타자의 욕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 따른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심어(Key Words):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청소년(Adolescent), 주체화(Subjectivation), 아버지의 이름(Name-of-the-Father), 문학치료(Literature Therapy)

I. 서론

“제 머리가 심장을 갇아 먹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 2013. 3. 28).” 2013년 경북의 한 사립고에서 전교 1등을 했을 정도로 주위로부터 촉망받던 아이가 자살 전 어머니께 보낸 메시지다. 이 유언은 학업경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의 고충을 나타내는 말이 아닐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학생들이 약 23%에 달한다(최인재·모상현 2013). 2013년에 발표된 13~19세 청소년 자살 충동 원인을 보면 성적 및 진학문제(39.2%), 가정불화(16.9%), 외로움(12.5%)의 순으로 나타났다(<http://kostat.go.kr/wsearch/search.jsp> 통계청, 2013, 청소년 통계 보도 자료).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을 회피하여, 자신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급격한 신체변화와 정신적인 성숙의 부조화로 인해서 불안감이 더해진다.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가시화 되고 나서야 그 심각성이 파악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의 행동에 대해 어른들의 잣대로 판단하고 지적하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강화된 훈육을 하게 된다.

이전 세대에 비해 부모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문화 혜택이 풍성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험행동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자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여러 해 동안 상담한 경험이 있다. 청소년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깊이 있

는 이야기를 나눌수록 사전에 보고 된 그들이 가진 고민과 문제 상황이 실제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과 다름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그들이 힘들어 할 때 다독여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가장 가까운 존재 ‘부모’에게 있었다.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청소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보다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은 ‘증상 그 자체’보다 증상을 발생시키는 환자의 심리적 구조를 규명하는 것을 진단 목표로 삼는 정신분석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살충동을 경험한 사람의 솔직한 글은 유용한 분석 자료가 될 것이다.

주체적인 삶이란 무엇일까? 연구자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자의 욕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무대를 스스로 연출할 수 있는 작가, 감독, 배우의 모습이다. 더 이상 타자의 욕망에 좌우되지 않으며 내가 느끼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력을 지닌, 자기 삶의 무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서의 삶이다.

본 연구는 헤르만 헤세(Hesse. H., 1877~1962)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자전적으로 그려 낸 그의 작품 속 인물을 자끄 라캉(Lacan. J., 1901~1981)의 주체화 이론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의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펼쳐지는 욕망의 무대는 어떤 형상이며, 그것을 조정하는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해 직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반 작업으로 소외와 분리의 문제, 환상의 횡단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작업은 그들의 문제를 들추기 위함이 아니다. 청소년의 주체성 형성을 위한 토대와 해결방안이 어른들의 양육태도와 가치관에 기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본 연구가 양육자의 전환점 찾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소년이 라캉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주체화의 길에 올바르게 진입하는 것이다. 그것에 다가가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캉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주체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계기’를 살펴보고, 주체화의 실패로 인한 한스의 문제를 라캉의 정신의학으로 진단한다. 둘째, 도착증적 주체로서의 한스가 위기를 극복하고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라캉 이론으로 설명한다. 셋째,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실현 될 수 있을지를 ‘아버지의 이름의 제대로 된 입력’이라는 측면에서 탐색해 보고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이로써 청소년들이 대타자의 욕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 따른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한다.

연구자는 한스가 주체화에 성공하지 못한 원인을 분리의 과정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스를 라캉 정신분석학에서 규정하는 도착증적 주체(Perversive Subject)로 보고 분석했음을 밝힌다.¹⁾ 라캉 정신분석에서 규정하는 도착증(Perversion)은 일반적으로 도착증자라고 간주되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정(Negation)의 양식, 즉 부인(Ver-leugnung)의 메커니즘에 국한된다(Fink, 1997, 2002: 286). 정신분석에서의 도착증은 규범에서 이탈한 성적 행동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 쓰이는 경멸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것은 신경증이나 정신병과 구별되는 구조적인 심적 범주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스의 도착증적 주체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체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계기의 진행과 더불어, 도착증이 정신병이나 신경증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도록 하겠다.

II. 소외, 분리, 환상의 횡단과 주체화

1. 주체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계기: 소외, 분리, 환상의 횡단

무의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신분석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한다.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은, 텍스트의 무의식성을 인식하고 내 속의 잠자던 문학성을 일깨우는 작업과 맥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

1) 『수레바퀴 아래서』의 한스에게서 성도착증자의 전형적인 행동들이 묘사되지는 않는다. 연구자는 대타자들에 대한 한스의 심리묘사와 행동을 통해서 도착증자의 메커니즘인 부인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외적 현실에 상반되는 심리적 태도와 심리적 분열을 관찰할 수 있었으므로 한스를 도착증적 주체로 보게 되었다. 도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프로이트가 그의 연구 초기에 주장했던 생식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모든 성적 행동이나 비정상적인 일탈행위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연구자 또한 도착이라는 용어에 대한 편협된 지식에 오랜 시간을 고민했다. 본인은 헤르만 헤세와 그의 작품을 연구하는 연구자이기 이전에 헤세의 삶을 사랑하고 그의 생활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팬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그의 자전적 작품의 주인공에게 ‘도착’이라는 진단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가 용납되지 않았다. 그러나 헤르만 헤세가 가졌던 아픔과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독자들에게, 특히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 또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인문학이 인간의 삶에 기여하고 삶과 더불어 발전하는 실용적인 측면의 기여를 위해서는 건강학적인 관점에서 치유력을 이끌어 내는 문학치료적인 연구뿐 아니라, 심리 상담과 관련된 여러 학문분야에서 토대이론으로 수용하고 있는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규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용기를 내게 되었다.

러한 무의식의 발견자가 프로이트라면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Lacan, 1977: 204)”고 밝힌 학자는 자끄 라캉으로 그는 주체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계기로 소외(Alienation), 분리(Separation), 환상의 횡단(Traversing of the Fantasy)을 제시하였으며 라캉 정신분석에서 분석의 끝에 나타나는 정신현상을 ‘환상의 횡단’이라고 일컫는다. 환상의 횡단을 실현 할 수 있는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 인간은 존재차원에서 의미차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데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자연에서 문명으로의 이행, 인간의 주체화, 상징화, 사회화 과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반드시 언어에 의한 소외와 분리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제도권 내에서 성장하고 물질의 풍요 속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를 수 있는 과정이 아니다. 그 이유는 외적인 환경 이상으로 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억압되어 온 무의식이 주체화의 완성에 크게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체화의 완성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소외와 분리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외는 주체 S가 시니피앙(언어)에 의해 빗금 쳐 지면서 새로운 S1이 탄생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존재로부터 의미세계로의 탈출이며 이것은 자유를 전제로 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선택 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것이다. 인간 주체의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존재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모든 욕구, 충족의 근원이기에 아이에게 있어서는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이며 어머니 품속에서의 생활은 낙원에서의 삶과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는 아이 스스로에 의해 일어나는 최초의 상실로 이것은 주체적인 인간 탄생을 예고한다.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도 단순히 이자관계가 아니라 어머니도(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아이에게 금지와 규범을 도입하는 상징적 어머니, 즉 대타자로서 기능한다. 이제 아이는 언어의 주체로서 존재하기 시작하며, 쾌락원칙과 현실원칙 사이에서 ‘강요된 선택’을 하도록 부추김을 당하는 것이다.

분리는 욕망으로서의 대타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어머니)대타자의 욕망으로부터의 분리/거세를 뜻하며 보편적으로 아버지에 의해 수행된다. 이 과정에서의 어머니는 나를 낳아 준 여성이기도 하지만 나와 가장 정서적인 밀착관계에 있는 주양육자를 일컫는다. 라캉 이론에서 말하는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무한한 사랑을 주는 양육자임과 동시에 욕망하는 어머니, 권력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생물학적 아버지뿐만 아니라 도덕, 규범, 제도, 권위, 법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어머니의 욕망에 ‘No’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뜻한다.

인간은 적절한 시기가 되었을 때 분리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전지전능하다고 여기던 어머니의 실체를 인정하고 부성적 권위의 개입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거

칠 수밖에 없는 고통이다.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감싸주는 존재, 아이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어머니와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밀착된 공간이 지속될 때, 아이는 어머니의 욕망에 삼켜질 것만 같은 불안을 느끼며 고통스러워 한다. 결여를 경험하지 못한 인간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청소년의 불안은 어머니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회화, 상징화, 주체화 과정에 대한 암시라고 할 수 있다. 비단 소외는 상징계에 의해 주체가 형성되는 최초의 순간일 뿐이며, 두 번째 단계인 분리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주체는 욕망의 주체로 태어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상의 횡단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라캉이 말하는 환상이란 무엇인가? 환상은 상징적 거세를 분기점으로 해서 갈라진 욕동(Drive)/ 주이상스(Jouissance)와 욕망(Desire)의 대치상황을 하나의 틀 속에 넣을 수 있는 개념으로 환상이 궁극적으로 무대에 올리고자 하는 것은 거세의 ‘불가능한’ 장면이다. 라캉의 후기이론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재해석하는 지젝(Žižek, S., 1949~)에 따르면 그는 “환상이 법에 의해서 금지된 욕망의 환상적 실현에 몰두하고 있다는 상식적 생각과는 반대로, 환타지성 서사는 법의 정지-위반을 무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 설정 그 자체, 상징적 거세의 개입 그 자체(Žižek, 1998: 202)”라고 하였다. 환상은 상징적 질서의 구조에 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환상을 객관적인 사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 경험과 결부시켜 사건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국 환상은 전이, 투사를 포함하는 무대이다.

환상 구조는 $\$ \diamond a$ 로 표기하는데 이것은 ‘분열된 주체의 오브제 a 와의 관계맺음’이라고 뜻매김되며 여기서의 마름모는 주체 $\$$ 의 오브제 a 에 대한 동일시 자체를 가리킨다. 우리가 환상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브제 a 의 출현 때문이다. 오브제 a 는 양립할 수 없는 욕망과 주이상스/욕동 영역을 매개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욕망의 대상-원인이 된다. 오브제 a 는 변함없이 나타나서 나의 환상을 자극하는 상수적 요소다. 기억과 경험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엮어 내는 이러한 환상들은 우리가 몽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뿐 아니라, 세상의 다른 측면들과의 관계맺음에도 영향을 미친다.²⁾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는 오브제 a 의 실체를 알려는 우리의 노력이 바로 환상의 횡단으로 이어진다.

2) 본 연구자는 임상현장에서 정신분석과 통합문학치료의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요청하는 대부분이 본인이 수용하지 못한 일방적인 상처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조차 없는 죄의식을 지니고 살아간다. 상담이 진행될수록 그들의 이야기는 유년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외디푸스기의 통과의례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사람, 어머니와의 분리, 아버지 이름의 자리잡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텍스트에서도 그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캉은 분리가 일어나는 시기, 아버지의 기표가 입력되는 시기, 외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시기를 한 개인으로서의 주체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이때의 통과의를 무사히 거친 주체는 상실, 소외, 결여, 오브제 *a*와의 관계에 있어서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잔잔한 감정으로 승화시키는 선택을 한다고 보았다.

2. 아버지의 이름과 도착증적 주체

연구자는 주체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세 가지 계기 중 분리의 과정에 집중하고자 한다. 소외된 주체가 욕망으로서의 대타자와 대결하는 분리의 과정은 프로이트의 외디푸스 콤플렉스, 라캉의 아버지 기표와 관련되는데 지금부터는 프로이트의 외디푸스 콤플렉스가 구체적으로 적용된 라캉의 제2메타포 공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김상환·홍준기, 2002: 61).

$$\frac{\text{아버지의 이름}}{\text{어머니의 욕망}} \cdot \frac{\text{어머니의 욕망}}{\text{주체에게 의미되는 것}} \rightarrow \text{아버지의 이름} \left(\frac{\text{타자}}{\text{팔루스}} \right)$$

이것은 ‘어머니(대타자)의 욕망’(m)Other’s Desire이 ‘아버지의 이름’(Name-of-the-Father)의 개입으로 대치/생략되고 그 결과 ‘아버지의 이름’의 기표가 정면에 부상하면서 안으로 대타자 속에 팔루스(Phallus)의 의미가 새겨지는 의미화 과정을 도식화하고 있다. 이때 아버지 메타포의 의미화 대치과정 결과 각인된 기표는 나르시시즘의 전령인 상상적 팔루스(Imaginary Phallus)가 아닌, 바로 거세의 기표(Signifier of Castration)인 상징적 팔루스(Symbolic Phallus)이다. ‘아버지의 이름’의 기표가 개입하기 전에는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 혹은 ‘어머니의 욕망의 기표’의 의미가 아이 자신이었으나 ‘아버지의 이름’의 기표가 개입됨으로써 이제 아이는 은유적 의미에서나 무의식적으로만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메타포 공식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제대로 입력’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캉은 아버지를 실재적 아버지, 상상적 아버지, 상징적 아버지로 구분한다. 실재적 아버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아버지이며, 상상적 아버지는 아이에게 처음 영향을 미치며 아이를 외디푸스 콤플렉스로 이끄는 아버지이다. 상징적 아버지는 순수한 기표적 특징을 갖는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특정 인물도 아이와 경쟁하는 아버지도 아니다. 상징적 아버지는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자체, 혹

은 언어와 욕망 속에 존재하는 결여 그 자체를 의미한다. 아이가 상징적 아버지를 파악한다는 것은 아버지라는 인물의 상징적 의미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한다. 상징적 아버지는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 존재하는 직접적, 자연적 관계를 분리시키고 아이로 하여금 ‘바깥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아버지이다. 일반적으로 권위, 양심, 도덕, 법 등을 포함한다. ‘아버지의 이름’의 입력은 대부분 가정에서 비롯되며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것으로 인간이 존재차원에서 의미차원으로 이행되기 위한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이름’을 입력하는 부모 자신도 그것에 종속되며 그것을 잘 따르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며 ‘아버지의 이름’의 개입에 있어서 일관성을 필요로 한다. 만약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생애초기에 그것을 폐기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는 정신병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³⁾

라캉의 정신분석을 주해한 브루스 핑크의 『라캉과 정신의학(A Clinical Introduction to Lacanian Psychoanalysis: Theory and Technique)』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설명된다 (Fink, 1997, 2002: 337).

정신병 → 소외 → 도착증

도착증 → 분리 → 신경증

신경증 → 환상의 횡단 → 신경증을 넘어서

이 내용에 기초하면,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극복 과정에 따라 피분석자는 정신병에서 소외를 거쳐 도착증(의 정신 구조)이 되고, 도착증에서 분리를 거쳐 신경증이 되며, 신경증에서 환상의 횡단을 거쳐 신경증을 넘어서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도착증과 정신병의 차이는 소외이고, 신경증과 도착증의 차이는 분리이다. 소외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신병이요, 분리가 없이 소외만 있다면 도착증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소외와 분리가 일어나더라도 환상을 넘어서지 못하면 신경증이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라캉의 진단체계는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구조적 진단법으로써 어떤 증상들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들을 조종하는 구조적인 망을 찾는 것이다. 박찬부 교수는 “정신분석에서는 상실과 결핍의

3) 라캉은 정신병의 원인으로 어머니의 욕망과 부모들의 경쟁을 중요시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자기의 팔루스, 자기의 소유물로 소유하고자 할 때, 또는 아버지가 진실되지 못하고 소유욕이 많으며 폭력적이라면 어린아이가 상징계로 진입하는 통로를 막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소외의 과정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정신병자는 어머니로부터 벗어나 분리된 주체가 될 수 없게 된다. 이에 반해 신경증자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 금지된 채로 존재하는 상태 즉, 신경증자는 분리된 주체로 존재하게 된다.

과정을 겪어야만 상징화, 사회화가 이루어진 오롯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상실과 결핍을 겪은 주체가 순간적으로 상상적 차원에서 전체성, 완전성, 충만성, 건강성을 획득하는 상을 얻게 되는데 이 환상에 나르시시즘적으로 집착하는 것이 증상적 삶이고 정신 분석적 신경증이다”라고 말한다(박찬부, 2013: 125).

지금부터는 정신병과 신경증 사이에 자리하는 도착증이라는 하나의 정신 구조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도착증에 관한 진단과 위치설정 관련 내용은 『라캉과 정신분석 임상: 구조와 도착증(*Structure et Perversions*)』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설명하겠다.

도착증의 메커니즘은 여자(어머니)가 거세되었다는 것, 페니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부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도착증 환자에게 있어서 여자가 페니스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도 거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여자는 페니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즉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착증 환자는, 아버지의 법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도전하고 위반하는 것에서 주이상스를 느끼게 된다. 어머니의 영원한 팔루스로 남기 위해 ‘팔루스를 가진 어머니’라는 환상을 유지해야 하므로 근본적으로 성정체성의 혼동을 가진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스에게는 어머니의 팔루스를 지키려는(팔루스를 가진 어머니라는 환상) 부인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며 이는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후의 장에서는 한스에게 나타난 소외와 분리의 문제, 즉 아버지 이름의 기표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음에 기인한 한스의 고통을 추적해 보겠다. 더불어 한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이름’의 입력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야 했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겠다.

III. 사례를 통해서 본 분리의 문제

연구자는 청소년의 주체성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청소년이 가진 문제의 원인을 소외와 분리, 상실과 결핍, 욕망, 그리고 오브제 *a*에 의한 환상에의 전복이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수레바퀴 아래서』⁴⁾의 한스가 겪게 되는 고통의 원인이

4)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우리말 텍스트는 김재혁(2013), 『수레바퀴 아래서』,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번역본을 그대로 인용했음을 밝힌다.

분리를 극복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았으며,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헤세는 인생의 주된 배경이 되었던 세기말의 혼란함, 경건주의 기독교 집안에서의 어려움, 아버지와의 갈등, 사랑의 실패,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반복되는 두통과 신경증의 시달림 등으로 자살 시도를 세 번이나 했으며 융의 제자 랑과 융으로부터 심층 분석상담을 받기도 했다.

본 연구자는 헤세의 삶과 그의 작품 속에서 통합문학치료의 치유효력을 찾아서 임상 적용을 하고 있으며, 한스와 같은 청소년을 위한 문학치료적 치유방안으로 ‘이별의식’과 ‘애도작업’을 제시한 바 있다.⁵⁾ 본 논문에서는 치유효력을 찾는 것보다 헤세가 경험한 상처의 근원을 라캉 이론으로 규명하는 것에 주안을 둔다. 헤세의 소설은 자전적 요소가 강하다. 헤세의 청소년기이자 『수레바퀴 아래서』의 배경이 된 19세기 말의 독일사회는 청소년의 자살, 특히 군사학교나 기숙학교 학생들의 자살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는 19세기 말의 독일 교육체제를 비판하는 교육소설임과 동시에 그 초점이 피교육자인 학생에게 맞춰져 있다. 헤세 자신이 겪은 내·외적 갈등을 한스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서술하는 자전적 소설이므로 분석할 가치가 매우 높은 소설이다. 『수레바퀴 아래서』의 주인공은 헤세의 삶을 보여주는 또 다른 헤세의 대체인물로 볼 수 있으며, 연구자는 1906년 출간된 『수레바퀴 아래서』의 주인공 한스를 어린 시절의 헤세의 모습으로 보고 본 작품읽기를 하였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의 한스는 강압적인 아버지의 양육아래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엄격한 가정환경에서 자란다. 소설에서는 어머니에 관해서 “그녀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다. 생시에 그녀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그녀는 늘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뿐이었다(Hesse, 1906, 2013: 9)”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한스는 어머니 없이 엄격한 소년 시절을 보냈던 탓인지 친근한 성품을 가지지 못했다. 어머니와의 지나친 애착관계가 분리의 과정을 실패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무한한 사랑을 주어야 될 어머니상이 고통스러워하거나 부재하는 것 또한 이후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페니스를 가진 어머니, 페니스를 가졌다고 믿고 싶은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어린아이는 외디푸스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 과정에서의 상

5) 연구자는 한스를 실패한 삶의 모델로, 페터 카멘친트를 이를 극복한 인물로 비교하여 청소년을 위한 문학치료적 대안을 찾아보았으며 「한국헤세학회」와 「주한독일문화원」에서 주최하고 도서출판 「민음사」에서 주관하는 2013년 한국헤세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발표와 토론 내용은 논문으로 수록되었다(채연숙조희주, 2014: 49-75).

실(박찬부, 2013: 125)을 겪게 된다. 또한 유년시절에 겪은 상실에 대해서 대다수 어른들이 슬픈 감정을 억압하거나 은폐하려 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슬픔을 내면화하는 경향을 보이기에까지 한다. 마울브론 신학교에 입학하던 날 한스는 부모에 대해 아무런 감동과 감사의 마음도 갖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그는 다른 많은 어머니들을 관찰하며 야릇한 느낌을 받았다(Hesse, 1906, 2013: 77)”는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어머니와의 관계가 다른 어머니들의 모습을 통해서 되살아나고 있다. 물론 어머니를 대신해서 한스를 돌보는 아주머니가 계셨으나 낙원과 탈낙원을 경험하게 하는 대타자의 역할은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정신분석에서 아버지 이름의 입력은 가정 내의 물리적인 아버지만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머니에 의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실행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은 어떻게 입력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까? 강압적인 아버지는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행동한다. 그의 요구는 끝이 없으며 아이의 작은 실수에 대해 변명의 시간도 용서를 구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 둘 사이에는 경쟁적인 긴장감이 감돌고 아이가 자랄수록 아버지는 불편한 존재, 고통을 주는 괴물이 된다. 일부 아버지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는 했으나 과도한 야심과 무절제한 권위주의에 둘러싸여 있다. 이들은 아들과 상징적인 협약관계가 아닌, 상상적인 경쟁관계나 적대관계를 맺게 된다(S3: 230). 반면, 법을 구현하는 아버지는 아들과 암묵적인 계약을 맺는다.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계약의 내용을 제안하는 사람은 아버지이지만 그것이 이행될 때는 반드시 참음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

한스에게는 일방적이고 무절제한 아버지, 조금도 존경심을 느낄 수 없는 아버지가 존재했다. 한스가 아버지를 묘사하는 장면을 살펴보자. “그의 내면은 속물 그 자체였다. 그에게 있던 약간의 정서는 이미 오래 전에 말라버렸고 그 자리엔 이제 고작 낡고 무뎠직한 가족 의식과 아들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가끔 기분이 나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충동적 성향이 차지하고 있었다(Hesse, 1906, 2013: 8)”와 “용기를 주려고 줄기차게 지껄여대는 아버지의 말, 이 모든 것이 소년의 마음을 짓눌렀다(Hesse, 1906, 2013: 24)”, “외려 숙모와 아버지의 손아귀에서 잠시 벗어나자 기분이 좋아지기까지 했다(Hesse, 1906, 2013: 29)”는 말에서도 한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존경하거나 따르고 싶은 대상, 권위를 가진 대상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 일쑤였다(Hesse, 1906, 2013: 36)”는 표현, 한스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진학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상의를 할 때 “어서 말해봐. 괜히 바보처럼 굴지 말고” [...] “웬 똥딴지같은 소리냐. 김나지움이라니! 내가 무슨 상업 고문관 나리라도 되는 줄 아냐?, 무슨 사내 녀석이 저래! 별꼴을 다 봐!(Hesse,

1906, 2013: 38)”와 같은 표현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는 한스에게 상징적인 기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앞의 메타포 공식에서 설명하였듯이 어머니와의 분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상태, 아버지의 이름조차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상태로 한스의 주체성 형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또한 한스에게는 가정에서의 아버지 이외에도 또 다른 아버지들이 있었다. 과도한 야심과 권위, 자신의 야망을 한스에게 투사하는 교장선생님과 마을 어른들이다. 그들은 오로지 한스가 잘 되기를 바라며 한스의 성장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였으나 바람직한 모습의 상징적 아버지는 아니다. 한스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어른들은 자신과 한스가 사랑이라는 고리로 통합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로 통합되는 것과 독립된 두 개체로서 유대를 맺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한 대상과 다른 대상이 통합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한다. 상대방과 다른 내 자아의 일부분이 갇히고 숨 막히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것에 기인한 환상은 외부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상대방 역시 극도로 통제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지만 한스는 신학교에 가서도 다른 학우들보다 앞서고 싶은 야망으로, 마을목사와 교장의 기대와 명예욕으로 또 다시 공부에 매이게 된다. “신학교에 가서도 다른 동료들보다 앞서려면 보다 더 패기와 끈기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스는 남보다 반드시 앞서고 싶었다. 그런데 왜 남들보다 앞서야 하는 걸까?(Hesse, 1906, 2013: 59)”에서 알 수 있듯이 한스의 주체는 타인의 욕망에 완전히 갇혀 있다.

어린 한스에게 있어서는 앞서 설명한 ‘아버지의 이름’이 제대로 입력되는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극복이 없었기 때문에 한스는 주체화를 이루지 못했으며, 한스의 오브제 *a*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있어서도 잔잔한 물결과 아름다운 황홀감이 아닌 고통의 순간으로 기억하게 된다. 또한 감정이 동반되는 순간 그는 항상 힘들어 하며, 급기야 죽음이라는 결말을 선택하게 된다. 병약한 어머니에게서 형성된 여성상과 삶의 중심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상은 이성과의 만남에서도 “그녀의 입술이 그를 놓아주기도 전에 짜릿한 쾌감은 죽을 것만 같은 피곤함과 고통으로 변했다(Hesse, 1906, 2013: 77).”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에 어찌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이른 새벽이 되었을 땐 그의 모든 고통과 불안이 한참동안 울음이 되어 터져 나왔다(Hesse, 1906, 2013: 214)”에서와 같이 한스는 엠마를 이성으로 봄과 동시에 어머니, 신과 같은 존재로 보기에 그에게 부인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갈등과 죄책감이라는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외디푸스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던 한스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모성을 향한 그리움과 성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환상을 갖게 된다. 그것은 생을 마감하는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한스는 이미 주변의 기대로 인해 ‘어린 시절을 빼앗기고’, 공부에 대한 압박감으로 3년 동안 키워온 자신의 ‘토끼들을’ 아버지로부터 ‘빼앗기는’ 경험을 한다. 한스에게 있어서 ‘토끼’와 ‘하일러’는 한스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고자 했던 어머니의 페니스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아버지의 금지가 부재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즉, 상징화가 부재하거나 실패) 된다. 부정하고 싶은 아버지의 이름 앞에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어머니의 페니스, 주이상스(성적, 친구, 이성)를 빼앗길 것 같은 불안과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이름(주위의 기대, 선생님의 신임)이 없어지는데 대해서 ‘결여의 결여’에 빠질 것 같은 불안에 고통스러워하게 된다. 한스는 스스로 아버지의 이름을 세우려고 시도하지만 그것은 늘 좌절만 안겨준다.

유아기 때의 상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스는 청소년이 된 시점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정서적 지지도, 주체화의 과정도 경험하지 못한다. 한스는 늘 두통과 신경증에 시달리게 되며 어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지닌다. 시험에 대한 압박은 꿈에서까지 그를 괴롭히고 있다.

“그날 밤, 한스는 깊은 잠을 자기는 했지만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117명의 다른 수험생들과 시험장에 앉아있는 꿈이었다. 시험관은 고향의 마을 목사나 숙모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스 앞에 초콜릿을 산더미같이 쌓아 놓으며 그것을 먹으라고 했다. 눈물을 흘리며 초콜릿을 먹고 있으려니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 일어나 작은 문으로 사라졌다. 다들 자기한테 주어진 산더미 같은 초콜릿을 다 먹었는데, 그의 초콜릿 더미만은 그의 눈앞에서 자꾸만 커져서 책상과 의자위로 팔팔 넘쳐 나 그를 질식시킬 지경이었다(Hesse, 1906, 2013: 27).”

일반적으로 보통 꿈은 ‘재현 가능성의 고려’라는 꿈의 작업(Dream-work)이 말하듯이 재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악몽의 경우는 바로 재현가능성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재현 불가능한 그 무엇, 실제적 어떤 것과의 조우를 뜻한다. 악몽은 욕동의 이 부분을 재현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꿈꾼 사람을 잠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극심한 불안가운데 깨게 하는 것이다. 한스는 스스로에게서 우러나는 즐거움은 느끼지 못하고 그를 지켜보는 아버지, 교장선생님과 주위 어른들의 기쁨이자 영광이 되어가고 있다. 주변인들의 욕망에 자신의 욕망이 편승한 것이 되어버린 한스는 목표달성에 대한 만족을 느끼기보다 또 다른 야망에 사로잡히는 괴로움을 겪게 된다. 이는 아버지의 이름이 엄마와의 주이상스를 금지하는 것과 같고, 도착증적 주체에게 있어서 쾌락이 불안을 유발하는 것과도 같다. 이처럼 한스가 방학기간에도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포기한 채 선행학습에 매여 있는 것은 성적 위주의 치열한 경쟁

속에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모습과도 비슷하다. 결국 한스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갖지 못하는 아버지와 몇몇 선생들의 야비한 야망 때문에 한때 상징계를 통해서 구축되었던 리비도마저 붕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버지 기표의 입력이 실패한 것을 넘어서 그것이 해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한스의 모습을 보자.

“이런 일은 거듭해서 일어났다. 어떤 인물이나 역사의 한 부분은 책 밖으로 뛰쳐나와 다시 한 번 살아보려고 절절히 열망하는 것 같았다. 살아있는 눈과 눈빛으로 마주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한스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다. 놀람기는 했지만 이렇게 홀연히 나타나 급세 사라지는 현상들로 인해 자신이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특이하게 변용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어두운 대지를 유리처럼 꿰뚫어 보거나 아니면 신의 눈빛을 접하기라도 한 것 같았다(Hesse, 1906, 2013: 138).”

한스에게 이러한 증상이 점점 더 자주 나타나게 된다. “눈을 크게 뜬 채로 가벼운 꿈을 꾸기도 했으며 몇 시간이나 반쯤 잠든 것처럼 멍하니 생각에 잠기곤 했다(Hesse, 1906, 2013: 158)”의 상황에 이르러서는 선생님들의 훈계와 질책에도 미소로만 답하게 된다. 한스의 판단력이 마비되고 현실 속의 사고구조를 잃어가며 자아정체감마저 혼미해져버린다. 급기야 “칠판 앞에 서는 순간 몹시 어지러웠다. 그는 백묵과 자를 가지고 칠판 앞에다 아무렇게나 줄을 긋다가 백묵과 자를 떨어뜨렸다. 그것들을 다시 주우려고 몸을 구부렸다가 무릎을 꿇은 채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Hesse, 1906, 2013: 161)”를 끝으로 한스에게 신경과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마을의사의 진단이 내려진다. 부권적 기능의 부재로 하여금 한스는 선생님들의 훈계와 질책에도 더 이상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다음은 전형적인 피학성 도착증자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그는 한적하고 조용한 여러 장소를 물색해 보았다. 마침내 죽기에 아주 안정맞춤인 한 장소를 찾아내 그곳을 자신의 죽음의 자리로 정했다. 그는 거듭거듭 그곳을 찾아갔으며 사람들이 얼마 뒤 거기서 죽어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임을 상상하고 묘한 쾌감을 느꼈다. 밧줄을 뿔 나뭇가지도 정해 놓았으며 충분히 튼튼한지도 시험해 보았다. 이제 그가 가는 앞길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었다. [...] 이렇게 죽음의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나자 그의 마음은 오히려 아주 편안해졌다. 운명의 나뭇가지 아래 가서 앉아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를 짓누르던 압박감도 사라졌고 즐겁고 행복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 운명의 여신은 한스가 자신의 어두운 생각을 즐기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죽음의 잔으로 몇 방울의 환희와 생명력을 들이키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Hesse, 1906, 2013: 168-169).”

타자의 욕망의 도구가 되었던 한스는 결국 자신을 타자의 향유의 대상이 될 희생자로 바치게 된다. 또한 한스가 자살을 했는지 사고로 죽게 되었는지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지

만, 이제는 그토록 불안에 떨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어머니의 페니스를 지킬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법의 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분리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불안을 경감시킨다. 그의 죽음은 한스에게 있어서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분리 이전의 삶으로 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스는 차갑게 식은 몸이 되어 말없이 어두운 강물을 따라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었다. 메스꺼움, 창피함, 그리고 괴로움은 그에게서 다 떨어져 나갔고, 차갑고 푸른 가을밤만이 어둠에 싸여 떠내려가는 초췌한 몸을 내려다보았다(Hesse, 1906, 2013: 243).”

한스의 장례식장에서 한스를 죽음으로 내 몬 공범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한스를 부추인 어른들’이 언급되면서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결국 한스에게는 상징적인 기표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버지가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이름’은 있었으나 한스에게 제대로 입력할 수 있는 어른이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한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청소년에게 건강한 정신을 가진 어른이 있어야 된다. 타자의 욕망과 관계를 맺고 있는 뿌리 깊은 환상관계를 인식하고 타자의 욕망에 대한 관계를 한층 더 표명하고, 말로 옮기고, 기표화하고, 상징화할 줄 아는 아버지의 이름이 제대로 입력된 어른들이 절실하다. 분리의 과정을 통과하고 라캉이 ‘환상의 횡단’이라고 부르는 추가적 분리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어른들이 있었다라면, 『수레바퀴 아래서』의 한스가 죽음으로써 욕망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IV. 나가는 말

한스의 실패한 삶을 되돌리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한스의 유년시절에 겪은 모성의 상실과 어머니의 부재에 관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보충이 있어야 된다. 한스의 유년시절에 아버지의 이름(기표)이 제대로 입력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청소년이 되어 서라도 부족하거나 미숙한 아버지 이름의 기표를 입력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한스가 상실의 아픔을 표현하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별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해주어야 된다. 한스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무작정 야망만을 심어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상상계는 감정덩어리다. 이곳에는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죄의식도 없다. 질서, 규칙, 법

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도 끝도 찾을 수 없는 엉켜있는 실타래다. 엉킨 실타래는 당겨서 실을 뽑거나 가위로 끊어서 그것을 풀 수도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실풀기가 아니다. 남는 부분은 더 엉켜버려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거나 잘려진 실 조각은 아무리 이어도 뜨개질 작품으로 기표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위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징계의 엄격한 법으로 상상계를 바로 잡겠다는 시도이다. 그러나 불가능하다.

상상계에서 비롯된 문제는 상상계로 다가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엄마의 무한한 사랑과 내침 없는 포용의 공간, 무엇이든지 수용될 수 있고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엄마의 자궁 속과 같은 공간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수용적인 어머니(대타자로서의 어머니)로부터 금지와 규범이 도입되는 최초의 경험을 했을 때 아이는 건강한 주체로서 걸음마를 하게 되므로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머니의 말만이 아이의 무의식 속에 아버지라는 심급을 각인시킬 수 있다. 대타자 욕망의 매개자로서의 어머니의 말 속에서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 때 아버지가 아이에게 권위를 세울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다시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속에서 엉켜버린(단단한 뭉치가 되어버린) 실타래를 살살 풀어서 상징계로 연결시켜야 된다. 권위로 제압하거나 강압적으로 성사시키는 것이 아니다.⁶⁾ 이것만이 청소년의 주체성 형성을 위한 ‘아버지 이름의 기표’가 입력되는 바른 방법이다. 책 속에서는 한스의 주체화 과정을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헤르만 헤세는 유년시절의 좌절을 글로 나타냄으로써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어가고 있다. 스스로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라캉은 그동안 믿어오던 무의식에 대해서 자기반성적 발언을 함과 동시에 실재계의 시대를 열게 된다. 라캉 이론의 핵심인 상징과 실재, 대타자와 오브제 *a*의 관계에서 상징의 결과로 드러나게 된 실재와 대타자에 의해 존재하게 된 오브제 *a*는 결코 상징질서에 환원될 수가 없다. 그러나 편입되기를 꿈꾸며 주위를 맴돌고 있다. 우리의 정신구조는 상실과 결핍을 보상하고자 환상이라는 소원성취의 무대를 연출하게 된다. 라캉의 정신분석치료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근거로 내면의 정체성(Identity)을 분석하고, 생각의 차원에서 이해·소화하여 감정의 소산이 일어나는 것을 치료라고 한다. 라캉 분석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실재에 대해서 말하기’는 나의 오브제 *a*를 찾아서(\$가 *a*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것, 어떠한 것에도 걸림이 없는 것을 지향한다. 분석가가 창의성을 이끌어내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의

6) 이것은 문학치료임상현장에서 유년의 기억이나 상처가 생긴 그 순간을 떠올리고 상실된 것에 대한 애도를 하는 것, 아울러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자발성에 의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이름을 입력하는 과정이다.

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듯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기표는 분석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한스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자기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자신의 소중함을 알 때 진정한 주체로 태어나며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알게 된다. 서로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고 한 대상이 다른 대상을 지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주어지는 애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알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과 극단적인 선택을 삶의 해결책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하여 한스를 사례로 하여 해결책을 강구해 보았다. 정신분석에 근거하여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학의 근본 철학과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연구자를 비롯한 정신건강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막중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주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강압, 지시, 몰아치는 아버지 이름의 기표가 아닌, 서로 소통, 수용, 기다릴 줄 아는 아버지의 이름이 입력되어야겠다.

둘째, 청소년을 양육의 대상에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더 이상 타자의 욕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무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가정, 사회,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분리, 상징화, 사회화, 주체화 과정은 이후 에라도 재작업될 수 있도록 치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의 삶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정체성 혼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추후 연구 계획을 세워 본다.

【참고문헌】

- 김상환·홍준기(2002), 『라캉의 재탄생』, 파주: 창작과 비평사.
- 박찬부(2007), 『기호, 주체, 욕망: 정신분석학과 텍스트의 문제』, 파주: 창작과 비평사.
- _____(2013), 『에로스와 죽음: 실재의 정신시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브루스 핑크(B. Fink) 저, 맹정현 옮김(2002), 『라캉과 정신의학: 라캉 이론과 임상 분석』, 서울: 민음사.
- 조엘 도르(J. DOR,) 저, 홍준기 옮김(2005), 『라캉과 정신분석임상: 구조와 도착증』, 서울: 아난케.
- 채연숙·조희주(2014), “청소년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본 헤세의 『페터 카멘친트』와 『수레바퀴 아래서』”, 『헤세연구』, 31(1):49-75.
- 최인재·모상현 (201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NAPI청소년 통계 브리프 8호.
- 페터 비트머(Peter, W) 저, 홍준기·이승미 옮김(1998), 『욕망의 전복』, 파주: 한울.
- 헤르만 헤세(H. Hesse) 저, 김재혁 옮김(2013), 『수레바퀴 아래서』,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Fink, B.(1995), 『The Lacanian Subject: Between Language and Jouissance』, Princeton: Princeton UP.
- Lacan, J.(1977a), 『É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W. W. Norton.
- _____(1988),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III: The Ego in Freud's Theory and in the Technique of Psychoanalysis(1959-1960)』, Tr. Sylvia Tomaselli, New York: W. W. Norton.
- Verhagehe, P.(2001), 『Beyond Gender: From Subject to Drive』, New York: Other Press.
- Žižek, S.(1998), 『Fantasy In Key Concepts of Lacanian Psychoanalysis』, Ed. Danny Nobus. New York: Other Press.
-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 2013. 3. 28. 인터넷 기사, onlinenews@heraldcorp.com.
- 통계청(2013), 청소년 통계 보도 자료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A Signifier of “Name-of-the-Father” for Adolescents’ Subjectivation -The Case of Hans in Hesse’s 『Beneath the Wheel』-

Cho, Hee Ju*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reflect on rearing attitudes of fosterers, as a way to guide adolescents to the path of subjectivation successfully. Adolescents’ problems are considered to have originated from a failure to separate themselves from “(m)Other’s desire.” For visualization of such problems, Hans is analyzed as an example, a character from Hermann Hesse’s autobiographic novel 『Beneath the Wheel』 depicting his own troubling period.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e study: First, “three constituents of subjectivation in Lacan’s psychoanalysis are identified. The process of Hans’s subjectivation, along with the cause of his failure, is also diagnosed by Lacan’s psychiatry. Second, “Name-of-the-Father”, which Hans needed to overcome his crisis and to live independently, is explained by Lacan’s theory. Last, this study identifies what adolescents’ independent lives will be like, examines fosterers’ attitudes and values on child-rearing, and suggests practical ways to guide adolescents to “Name-of-the-Father.”

Based on the study, we reached a conclusion as follows. First, to get the adolescent to establish their own subjecthood, the “Name-of-the-Father” acceptable oppressive and instructive needs to be entered. Second, the adolescent must be perceived as an independent identity not as the subject for nurturing.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Email: whgmlwn33@hanmail.net)

By following the process above, adolescents are expected to live independent lives by their own will, instead of being dragged by “others’ desire.”

Key Words: Hermann Hesse, Adolescent, Subjectivation, Name-of-the-Father, Literature Therapy